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21



Contents

※ 2026.03.12.(목) 기준(대상 기간 : 2026.03.05.~2026.03.11.)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AI·탄소중립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기본계획' 추진(2026.03.11) 1
- 탄소중립 녹색경영 포상 공모...친환경 기여자 발굴(2026.03.08) 1
- 창원시 '누비자 탄소중립포인트제' 두 달 만에 탄소 15.3t 감축(2026.03.11) 2
- 제천시, 탄소중립포인트제로 자동차·에너지 분야 시민 참여 유도(2026.03.10) 2
- 논산시,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자 모집...최대 10만 원 지급(2026.03.10) 2
- 서산시,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탄소중립·복지 동시 추진(2026.03.10) 3
- 여수시,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탄소중립 선도도시 구현(2026.03.10) 3
- 부산시,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 차량 6,551대 모집(2026.03.09) 4
- 삼척시, 수소전기자동차 57대 보급...탄소중립 수소도시 기반 강화(2026.03.06) 4
- 광주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시행...최대 10만 원 지급(2026.03.06) 4
- 군산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본격 시행(2026.03.05) 5

■ AI 분야 5

- 정부,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대전·충청·강원 대상(2026.03.05) 5
- 동대문구, AI·IoT로 노후 시설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2026.03.11) 6

- 경북도, 내년 국비 13조2000억 목표...AI 등 민생 안정 집중(2026.03.10) 6
- 아산시-천안시, 'K-AI 특화 시범도시' 공동추진 협약(2026.03.06) 6
- 제천시, 직원 대상 AI 업무 역량강화 특별강연 개최(2026.03.05) 7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7

▪ 탄소중립 분야 7

- 한수원, 체코전력공사와 청정수소 MOU 체결...글로벌 탄소중립 실현(2026.03.11) 7
- 화학산업협회·원자력연, 석유화학 탄소중립 위한 고온가스로 기술 협력(2026.03.06) .. 8

▪ AI 분야 9

- 서부발전, 두산에너지빌리티와 복합발전 AI 핵심기술 개발 협약(2026.03.09) 9
- 대구시교육청, AI 수학점핑학교 확대 운영(2026.03.09) 9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0

▪ 탄소중립 분야 10

- 남서울대-천안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 교육과정' 출범(2026.03.06) 10
- 로테르담항, 탄소중립 항만 거점으로 변신...부산에 시사점(2026.03.10) 10

■ AI 분야 11

- SK(주), SK하이닉스 미국 AI 메모리 자회사에 3600억 원 투자(2026.03.11) 11
- 한·일 배터리 기술리더, '포스트 EV' AI 전략 공식화(2026.03.11) 11
- LS머트리얼즈, AI 데이터센터용 울트라캐패시터 시스템 공개(2026.03.11) 12
- SKT, 2030년까지 스타트업 500곳 AI 동반 육성 선언(2026.03.05) 12
- 중동 데이터센터 공격으로 AI 허브 전략에 비상등(2026.03.09) 13
- 일본 대법원, AI 발명자 특허 출원 최종 불허(2026.03.06) 13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AI·탄소중립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기본계획' 추진(2026.03.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AI 확산과 탄소중립 전환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마련에 착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 - 생성형 AI가 사무·인지 노동뿐 아니라 제조·물류 현장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IMF는 AI가 전 세계 일자리 약 40%, 선진국 60%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 탄소중립 정책도 석탄발전·내연기관 산업 축소 등 고용 구조 변화 촉발 전망. - 정부는 노사정 참여 구조로 '산업전환 일자리 포럼' 등을 통해 직무 전환 지원, 전환훈련 강화, 노동 이동 지원 등 구체적 정책 과제를 마련할 방침.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정책 추진이 핵심 목표.
	<p>☐ 탄소중립 녹색경영 포상 공모...친환경 기여자 발굴(2026.03.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매일경제와 공동으로 '탄소중립 녹색경영' 포상 신청을 접수.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표적 정부 포상 제도로, 국내 활동 중인 기업·공공기관·단체·개인이 대상. - 포상 부문은 단체 종합대상(대통령 표창), 전문대상(국무총리 표창), 전문상(산업부장관 표창) 등으로 구성. 유공자에게는 산업훈장·산업포장 및 각급 표창이 수여되며, 특별상으로 지구환경보전상 등도 마련. - 신청 기간은 6월 5일까지이며, 매경안전환경연구원·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산업부 산업환경과에서 접수. 한국환경공단·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후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창원시 '누비자 탄소중립포인트제' 두 달 만에 탄소 15.3t 감축(2026.03.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원레포츠파크가 올해 도입한 '누비자 탄소중립포인트제'가 시행 두 달 만에 성과 도출. 1~2월 누비자 이용 실적은 총 60만83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 포인트제 참여자 평균 이용거리는 2.08km로 미참여자(1.8km) 대비 약 15.6% 긴 수치 기록. - 누비자 탄소중립포인트제는 1km 이용 시 100원 적립, 연간 최대 7만 원 환급 제도. 창원레포츠파크가 전국 공영자전거 운영 지자체 중 최초로 참여 기업에 선정. 참여자 2,278명이 총 7만7354km 주행하며 약 773만 원의 인센티브 적립. - 승용차 이용 대체를 통해 약 15.3톤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 달성. 향후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및 GPS 고장 예측 시스템 개발 등 서비스 기능 개선 추진 계획.
	<p>□ 제천시, 탄소중립포인트제로 자동차·에너지 분야 시민 참여 유도(2026.03.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제천시가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며 자동차 분야와 에너지 분야에서 시민의 탄소 절감 실천 유도. 자동차 분야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 대상,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보상금 지급. - 올해 자동차 분야 모집 규모는 296대이며, 3월 16일부터 26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접수.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과 법인·단체 소유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 에너지 분야는 가정·상가·학교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절감 정도에 따라 포인트 부여. 보상은 연 2회 현금 또는 그린카드로 지급되며, 누리집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p>□ 논산시,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자 모집...최대 10만 원 지급(2026.03.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시가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 참여자를 모집. 1차 모집 기간은 3월 16일부터 26일까지. 참여 대상은 논산시 등록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량 소유자이며, 친환경 차량과 법인·단체 차량은 제외.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전용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 과거 주행거리 대비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 지급 예정. -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실질적 저감과 시민 자발적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이 목표. 세부 사항은 탄소중립포인트 콜센터 또는 논산시청 환경과 기후 변화정책팀에서 안내.
	<p>□ 서산시,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탄소중립·복지 동시 추진(2026.03.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마을 자생적 경제 구조 구축을 위해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사업' 추진. 마을 소유 회관 건물이나 유휴 토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6개 마을 선정. - 총 3억 5,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4개 마을에 각 30kW급, 2개 마을에 각 20kW급 태양광 설비 설치 예정. 마을회가 설치 비용의 30%를 자부담하고 시가 나머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 발전 수익은 마을 운영비, 어르신 복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 마을 공동체 의식 함양 등 복합 효과 기대.
	<p>□ 여수시,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탄소중립 선도도시 구현(2026.03.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시가 탄소중립 기후·환경 선도도시 구현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무공해자동차(전기·수소)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2026년 1차 공고를 통해 28억 원 예산으로 전기승용차 348대 보급, 지난해 407대의 85.5% 수준. - 수소자동차(승용) 100대 보급을 목표로 35억 원의 사업비 투입, 수소전기승용차 1대당 3,500만 원 지원. 신청 대상은 여수시 주소 3개월 이상 보유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여수시 소재 기업·법인·단체·공공기관. - K-EV100 가입 민간기업 등 대량수요 기업에는 최대 2대까지 지원 가능. 대상자 선정은 차량 등록·출고 순으로 진행되며, 2차 보급 사업은 추후 공고 예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부산시,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 차량 6,551대 모집(2026.03.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가 3월 9일부터 19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 차량 6,551대를 선착순 모집. 올해 국비 2천만 원 추가 확보로 지난해보다 1,805대 증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대상. - 참여 전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신청일~10월)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5단계로 인센티브 지급. 12월경 지급 예정이며,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총 1만 2,876대 참여, 3,095톤 온실가스 감축, 5억 7,400만 원 인센티브 지급 실적. 1차 모집 미달 시 2차 모집(4.6~4.10.) 진행 예정.
	<p>□ 삼척시, 수소전기자동차 57대 보급...탄소중립 수소도시 기반 강화(2026.03.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 삼척시가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올해 보급 물량은 총 57대로 수소승용차 55대, 수소버스 2대. 수소승용차 1대당 3,450만 원, 수소버스 최대 4억 1,000만 원 보조금 지원. - 보급 차종은 현대자동차 '디 올뉴 넥쏘'로 1회 충전 최대 720km 주행 가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혜택 제공. 신청 기간은 12월 9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369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실적 보유. 2024년 국내 최초 수소특화단지 선정, 글로벌 액체수소 공급 인프라 건설기술 개발사업 실증지 최종 선정 등 수소 산업 생태계 전주기 구축에 박차.
	<p>□ 광주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시행...최대 10만 원 지급(2026.03.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시가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차량 선착순 모집. 올해 모집 대수는 5,378대로 지난해보다 2,235대(71.1%) 확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대상. -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가입일~10월 31일)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현금 지급.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신청 후 차량 전면·계기판 사진 제출 필요.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3,143대 참여, 1,832대가 1억3,300만 원 인센티브 수령. 온실가스 667tCO₂-eq 감축으로 30년생 소나무 약 7만3,000그루 식재와 동등한 효과 달성.
	<p>□ 군산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본격 시행(2026.03.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가 3월 9일부터 19일까지 '2026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 한국환경공단 운영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2만 원~최대 10만 원 인센티브 차등 지급.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대상. 법인·단체 소유 차량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 참여 기간은 신청월~10월이며, 일평균 주행거리 감축 실적 기준으로 산정. - 지난해 신청 승인 366대 중 194대가 감축 기준 충족하여 인센티브 수령. 올해는 약 350명 선발 계획이며, 모집 인원 한정으로 조기 마감 가능성 존재.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정부,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대전·충청·강원 대상(2026.03.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가 6일부터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 실시.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의 도시 단위 실증과 확산이 목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대전·충북·충남과 강원 지역 도시를 공모 대상으로 선정. - 권역별 1곳씩 총 2곳을 6월에 선정 예정이며, 제안서 접수는 5월 18~22일 진행. 선정 도시에는 기본구상 수립 과정에서 국비 20억 원 지원. 내년부터 AI 인프라 구축·운영 지원, 규제특례 부여, AI 기술 개발·실증 등 단계적 지원 제공. -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AI 기술을 도시 현장에 접목해 K-AI 시티를 브랜드화하고 시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침 표명. 지방정부와 민간의 적극적 참여 요청.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동대문구, AI·IoT로 노후 시설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2026.03.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동대문구가 민간 건축공사장과 노후 시설물에 AI·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 추진. 공사장에는 CCTV 영상을 AI가 실시간 분석해 위험 상황 판별 후 자동 경보를 보내는 'AI 시각지능시스템' 적용 방안 추진. - 작업자 쓰러짐·안전모 미착용·중장비 안전거리 미확보·위험구간 침범·화재 발생 등을 AI가 감지. 노후 시설물에는 IoT 센서 기반 기울기·균열 상시 점검 체계를 109개소 404개 센서로 운영 중이며, 민간 노후 건축물 중심 단계적 확대 방침. - 이필형 구청장은 2월 'AI 공존도시 선포식'에서 AI 기술의 행정·도시 운영 접목 구상을 밝힌 바 있으며, 공사장·노후시설 안전관리를 그 연장선에서 추진. '나기 전에 막는' 스마트 안전관리로 구민 안심 도시 조성이 목표.
	<p>□ 경북도, 내년 국비 13조2000억 목표...AI 등 민생 안정 집중(2026.03.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도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를 13조2000억 원(올해 대비 3.7% 증가)으로 설정하고 추진 상황보고회 개최. 정부의 '기술주도 성장'과 '5극 3특' 체제에 맞춘 신규 국비 사업 발굴 전략, 5대 첨단산업(MegaTech) 연합도시 구축 방안 논의. - 주요 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포항 횡단 고속도로 건설 등 SOC 사업과 함께, AI 로봇 기반 연안안전 기술 개발·극지해양정보 AI센터·첨단반도체 소재부품 복합센터·경북형 소상공인 AI 비즈코치 구축 등 AI·첨단산업 사업이 포함. - 이철우 경북지사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역대 최대 편성 시점에서 경북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적기라고 평가. 도-시군-지역 국회의원 원팀 체계로 국비 확보에 행정 역량 집중 방침.
	<p>□ 아산시-천안시, 'K-AI 특화 시범도시' 공동추진 협약(2026.03.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시와 천안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K-AI 특화 시범도시' 공모 사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6월 최종 선정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AI 도시 모델 구축,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전환, AI 실증 플랫폼 조성 등 추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시 2026년 기본구상 수립 단계에서 국비 20억 원 지원, 2027년부터 AI 인프라 구축·운영 지원, 규제 특례 부여, AI 기술 개발·실증 등 단계적 지원. 아산시 는 '강소형 스마트시티'(2023년), 천안시는 '거점형 스마트시티'(2024년) 기선정 실적 보유. - 오세현 아산시장은 하나의 생활권인 양 도시가 기존 교통·안전 공동 관제 시스템에 AI 기술을 접목하면 시민 체감도 높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고 평가.
	<p>□ 제천시, 직원 대상 AI 업무 역량강화 특별강연 개최(2026.03.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제천시가 행정 혁신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AI 기술 주제 특별강연 개최. 마이크로소프트사 이정훈 수석 컨설턴트가 'AI 기반 업무 방식의 변화와 행정 적용 방안' 주제로 강연 진행. -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하여 행정 자동화·민원 응대 개선·정책 수립 지원 등 다양한 활용 사례와 발전 방향 공유. 제천시는 기존에 지능형 침수 대응 시스템, 취약계층 돌봄 로봇, 어르신 건강 관리 등 AI 기반 스마트 행정 추진 실적 보유. - 시민 안전·복지·건강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을 폭넓게 적용하여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 계획. AI 역량 강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 구현이 목표.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한수원, 체코전력공사와 청정수소 MOU 체결...글로벌 탄소중립 실현(2026.03.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전력공사와 청정수소 사업 및 기술개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협력 MOU 체결. 양 기관의 원전 운영 역량과 수소 기술을 기반으로 유럽 청정수소 시장 협력 사업 공동 발굴이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에 따라 저탄소·재생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이퓨얼(e-Fuel) 생산, 수소 전주기 기술개발, 정책·규제·시장 정보 교류 등 청정수소 전반에 걸친 협력 추진. 원전 기반 청정수소 생산 모델 중심의 체코 내 실증사업과 사업화 가능성 단계적 검토 계획. - 체코전력공사는 두코바니·테플린 원전 6기를 운영하는 체코 최대 에너지 기업으로 체코 전력 생산의 약 70% 담당.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에서 한수원이 주계약자로 사업 이행 중.
	<p>□ 화학산업협회·원자력연, 석유화학 탄소중립 위한 고온가스로 기술 협력(2026.03.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화학산업협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석유화학 산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차세대 원자로인 고온가스로(HTGR) 기술 협력 MOU 체결. 화학산업 공정에 필요한 고온 열에너지를 탄소 배출 없이 공급하는 기술 활용이 핵심. - 고온가스로는 석유화학 공정에 필요한 고온 스팀(공정열)을 공급 가능한 차세대 원자로로,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원으로 평가. 대량 열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중립 대안 기술로 주목. - 양 기관은 국내 석유화학 기업 요구사항을 반영한 현실적 고온가스로 설계 추진 및 상용화 기회 발굴 계획. 협약 후 원자력연 '초고온 헬륨 루프'와 '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연구시설' 방문을 통해 탄소 저감 연구 현황 확인.
지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서부발전, 두산에너지빌리티와 복합발전 AI 핵심기술 개발 협약(2026.03.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서부발전이 두산에너지빌리티와 '국산 가스터빈 기반 복합발전 분야 AI 개발 업무협약' 체결. 복합발전 설비의 가상모형을 실제 운전 정보 활용 수준으로 고도화하여 설비 이상 예측·원인 진단이 가능한 지능형 가상모형 개발이 목표. - 개발 기술은 국산 가스터빈이 설치된 김포열병합발전소에 적용 예정. 서부발전은 발전설비 정보·운영 지식·실증환경을 제공하고,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물리 기반 정보 활용 고성능 예측 모델과 AI 기술 접목. - 향후 AI 발전설비 제어·자동 기동정지 체계, 생성형 AI, 자율점검 로봇 등 신기술 단계적 적용 계획. 김포 실증 성과를 여수복합발전소에 확대 적용하고, K가스터빈과 K가상모형 패키지화를 통한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
지방기관	<p>☐ 대구시교육청, AI 수학점핑학교 확대 운영(2026.03.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교육청이 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AI 활용 수학점핑학교'를 확대 운영. 2021년부터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초등 3~6학년, 중학 1·2학년, 고등 1학년 대상으로 AI 기반 진단·학습·피드백을 유기적으로 제공. - 운영 학교를 지난해 392곳에서 올해 395곳으로 확대하며, 특히 고등학교 운영을 34곳까지 확대. AI 교육자료가 학생 개인 학습 수준을 실시간 분석해 맞춤형 문제를 자동 제공하고, 교사는 이를 기반으로 협력·프로젝트 학습을 설계. - 올해는 교과서형 AI 디지털 수학교육자료와 수학점핑학교를 연계 운영하며, 방과 후 소그룹 보충학습·멘토링에도 AI 수학 학습 플랫폼 활용. 방학 중 학교별 행사와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 지속성 확보 계획.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해당 없음
대학교	<p>☐ 남서울대-천안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 교육과정' 출범(2026.03.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서울대학교가 천안시 및 천안시탄소중립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 출범식' 개최. 세 기관은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탄소중립 포럼 사무국 신설 추진. - 배출된 전문가의 지역사회 활동 지원, 지속적 교육 서비스 제공 등 지역 내 협력망 구축이 목표. 대학 구성원과 천안시민 대상 기후 위기 인식개선 캠페인과 실천운동도 적극 전개 방침. - 윤승용 총장은 시민들이 기후 위기 심각성을 체감하고 실질적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 천안시와의 지속적 협력 사업 추진 의지 표명.
해외	<p>☐ 로테르담항, 탄소중립 항만 거점으로 변신...부산에 시사점(2026.03.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1위 물동량의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마스블라테2 터미널이 무인 크레인·자율주행 운반 차량·야적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는 100% 자동화 항만으로 운영. 항만 내 대규모 수소 생산 단지 조성, 풍력 발전 전력의 하역 장비 공급 등 탄소중립 실행. - 전 세계적 탄소 규제를 경쟁 우위로 전환하는 전략을 통해 기업 유치 선순환 구조 구축. 지리적 이점과 첨단 시스템을 갖춘 로테르담항에 한국 기업을 포함한 다수 해외 기업이 물류 거점으로 선택. - 부산은 로테르담 사례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연계 및 수산물 수출입 물류 기지 과제 개발에 착수. 글로벌 해양수산 허브를 지향하는 부산에 항만 체질 개선이 필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과제로 부상.
기타	- 해당 없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SK(주), SK하이닉스 미국 AI 메모리 자회사에 3600억 원 투자(2026.03.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그룹 지주사 SK(주)가 SK하이닉스의 미국 AI 메모리 솔루션 자회사 'AI 컴퍼니' (가칭)에 2억5000만 달러(약 3684억 원) 출자 약정 체결. SK이노베이션의 3억8000만 달러 출자를 포함하면 그룹 차원 투자금이 1조 원에 육박. - 자금은 향후 4년간 '캐피탈콜' 방식으로 집행 예정.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 자회사 솔리다임을 개편해 AI 컴퍼니 설립을 추진하며, 미국 AI 혁신 기업 투자 및 협업 확대가 주요 역할. - 기존 낸드플래시 사업은 솔리다임 사명을 유지한 새 자회사에서 계속 수행. SK그룹은 AI 중심 전사적 성장 전략 지원과 선제적 투자 기회 확보를 위한 주요 계열사 공동 출자 결정이라고 설명.
	<p>☐ 한·일 배터리 기술리더, '포스트 EV' AI 전략 공식화(2026.03.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배터리 2026'에서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와 일본 파나소닉의 기술 수장들이 AI 전환과 안전성 기반 '신뢰 기술'을 차세대 기술 로드맵 핵심 키워드로 제시. 14개국 667개사 참여, 2382부스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 LG에너지솔루션은 AI 에이전트 활용 R&D 속도 10배 압축 방침과 LFP 배터리 충전량 예측 정확도 30% 향상 성과 공개. 삼성SDI는 2027년 양산 예정 전고체 배터리와 AI 데이터센터용 UPS 투자비 40% 절감 시스템 발표. SK온은 배터리 신뢰 밀도 '트러스티' 기술 전면 제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나소닉 와타나베 CTO는 한국 업계를 '미래를 함께 만들 좋은 라이벌'로 정의하며 아시아 기업 간 협력 강조. 데이터센터 성장과 AI 확산으로 배터리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 등 신시장 대응에 안전성이 최우선 가치라고 역설.
	<p>□ LS머트리얼즈, AI 데이터센터용 울트라캐패시터 시스템 공개(2026.03.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S머트리얼즈가 '인터배터리 2026'에서 AI 데이터센터용 울트라캐패시터(UC) 시스템 공개. 충·방전 수명 600만 회 이상으로 기존 범용 UC 대비 약 6배 긴 수명 확보, 최대 5년 이상 사용 가능. - 생성형 AI 확산으로 GPU 서버 전력 사용량 급증에 따른 순간 전력 피크 현상에 대응 가능한 고출력 성능 설계. 셀 단위에서 모듈·시스템 단계로 확장하고 방열 성능 2배 이상 개선, 내부 저항을 낮춘 설계 적용. - 홍영호 대표는 AI 데이터센터에서 순간 전력 피크 대응과 긴 수명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 현재 AI 데이터센터용 서버 장비 제작 글로벌 기업들과 공급 협의 진행 중.
	<p>□ SKT, 2030년까지 스타트업 500곳 AI 동반 육성 선언(2026.03.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텔레콤 정재현 대표가 MWC 2026에서 국내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AI 동반자' 약속. 2030년까지 5년간 스타트업 500곳 육성 지원 계획을 수치 포함 구체적으로 공개. - 올해 80곳 지원 추진: 스케치 for Good·스케치 with AI 프로그램(각 15곳), 스타트업 협업 플랫폼(10곳), 대전·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20곳), 정부 지원사업 참여 협업(10곳), 1:1 상담 및업(10곳) 등. 매년 단계적 확대로 2030년 120곳까지 지원 목표. - MWC26 부대행사 '4YFN'에서 AI·ESG 분야 혁신 스타트업 15곳 전시 지원. 정부의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등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AI 기술·인프라·사업 역량을 스타트업과 연계한 동반 성장 전략 추진.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해외</p>	<p>□ 중동 데이터센터 공격으로 AI 허브 전략에 비상등(2026.03.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과 서방 간 군사 충돌이 걸프 지역 3000억 달러(약 400조 원) 규모 AI 인프라 투자 계획에 변수로 부상. 이란 드론 공격으로 UAE 내 AWS 데이터센터 2곳과 바레인 시설 1곳이 타격, AI 인프라의 군사 충돌 위험 노출 확인. - UAE·사우디·카타르·바레인 등이 오일머니를 동원해 데이터센터·AI 반도체·자체 AI 모델 개발에 3000억 달러 이상 투입 계획. 오픈AI·xAI·MS·아마존·구글·오라클 등 빅테크가 현지 대형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 추진 중. -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해저 광케이블 등 물리적 인프라 취약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 전쟁이 AI 인프라 투자 전략 자체의 재검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 <p>□ 일본 대법원, AI 발명자 특허 출원 최종 불허(2026.03.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최고재판소가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 출원을 최종 불허. 미국인 스티븐 테일러 씨가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표시한 식품 보관 용기 특허 출원에 대해 상고를 기각. - 1심·2심 재판부 모두 '발명자는 인간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으며, 최고재판소가 이를 최종 확정. 테일러 씨는 한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진행. - 한국 법원에서도 현행 특허법상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주요국에서 AI 발명자 인정 불가 판례가 축적되는 추세.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